



강북구의회  
GYEONGBUK DISTRICT COUNCIL

# 의정활동보도

2015년 7월 13일  
(월요일)

## 시사프리 4면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김도연)가 수유리 먹자골목에서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납부확인증 방식 종량제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음식물쓰레기 배출 현장 점검

####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납부확인증 방식 종량제 실시 현장 찾아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김도연)는 제190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7월8일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납부확인증 방식 종량제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수유리 먹자골목(강북구 한천로140길 일대)을 찾아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7월1일부터 강북구의 모든 소형음식점에서 시행되는 '전용용기 납부확인증 방식'은 전용수거용기에 납부확인증 스티커를 붙여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 방식으로, 200㎡ 미만 일반음식점, 300㎡ 미만 휴게음식점, 주점 등 관내 모든 음식점을 대상으로 하며, 일반 가정과 동일하게 전용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거나 수거업체와 계약 후 월 단위로 정산하던 기존 방식의 단점을 보완하여, 납부확인증에 인쇄된 바코드를 스캔한 후 수거하는 방식으로 소형음식점들의 음식물쓰레기 배출량과

악과 종량제 정착이 가능해져 음식물쓰레기 감량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번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납부확인증 방식의 현장을 찾은 복지건설위원회 김도연 위원장을 비롯한 이용균, 김명숙, 박문수, 유인애, 이영심, 한동진 의원은 여러 음식점을 방문하여 수거방법, 배출방법을 점검하고, 업소 주인들의 의견을 듣고 여름철 음식물 쓰레기 배출의 예로 상황에 대해 공감하였으며, 타자치구의 사례를 통한 개선점 등을 살펴보았다.

또한 김도연 위원장은 전용용기 납부확인증 방식이 처음 시행되는 만큼 불편한 점이 발생할시 즉시 개선할 수 있도록 업소의 의견을 수렴하고 점검 하도록 구청관계자에게 당부하였다.

## 동북일보 4면

### 복지건설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및 도로 현장 방문

#### 소형음식점 방문해 배출방법, 수거방법 점검 인수동 도로환경 개선사업 타당성 조사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김도연)는 제190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7월 8일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납부확인증 방식 종량제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수유리 먹자골목(강북구 한천로140길 일대)을 찾았으며, 또한 7월 9일에는 인수동23가길(경천사 진입로) 도로환경 개선공사 사업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을 찾아 도로여건과 사업필요성을 검토하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7월 1일부터 강북구의 모든 소형음식점에서 시행되는 '전용용기 납부확인증 방식'은 전용수거용기에 납부확인증 스티커를 붙여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 방식으로, 200㎡ 미만 일반음식점, 300㎡ 미만 휴게음식점, 주점 등 관내 모든 음식점을 대상으로 하며, 일반 가정과 동일하게 전용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거나 수거업체와 계약 후 월 단위로 정산하던 기존 방식의 단점을 보완하여, 납부확인증에 인쇄된 바코드를 스캔한 후 수거하는 방식으로 소형음식점들의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파악과 종량제 정착이 가능해져 음식물쓰레기 감량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번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납부확인증 방식의 현장을 찾은 복지건설위원회 김도연 위원장을 비롯한 이용균, 김



▲ 수유리 먹자골목을 방문한 복지건설위원회 김명숙 의원, 김도연 위원장, 박문수 의원, 이영심 의원, 유인애 의원, 이용균 의원, 한동진 의원(좌로부터)

명숙, 박문수, 유인애, 이영심, 한동진 의원은 여러 음식점을 방문하여 수거방법, 배출방법을 점검하고, 업소 주인들의 의견을 듣고 여름철 음식물 쓰레기 배출의 예로 상황에 대해 공감하였으며, 타자치구의 사례를 통한 개선점 등을 살펴보았다.

김도연 위원장은 전용용기 납부확인증 방식이 처음 시행되는 만큼 불편한 점이 발생할시 즉시 개선할 수 있도록 업소의 의견을 수렴하고 점검 하도록 구청관계자에게 당부하였다. 이어 다음 날에는 도로개선공사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현장을 찾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들은 김기용 도로관리과장의 경천사 진입로 폭 6m, 길이 173m 도로가 현재 노후 파손되어 차량과 통행인의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급경사도 인하여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아스팔트 포장, 급경사 미끄럼방지 포장, 측구 및

경계석 설치 등의 도로환경 개선공사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설명을 들은 후, 급경사의 노후파손된 도로상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통행불편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위험성을 우려 하며 도로환경 개선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다만 사업비 1억3천2백9십만 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인 만큼 향후 추경예산 등을 통한 예산확보에 관심과 노력을 함께 하기로 했다.

그리고 급경사 도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현재 계획중인 미끄럼방지 포장공사 유효기간이 2~3년인 만큼 효율성과 효과성 있는 다른 사업방법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당부하기도 하였다.

또한 김도연 위원장은 '통행 주민불편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조속한 예산 확보와 공사시행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